

이재명 “국정안정협의체, 경제 한정 논의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자신이 최근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와 관련해 “혹시 국정 전반에 대한 협의체 구성이 부담스럽다면,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를 구성해 줄 것을 국민의힘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 위원회에서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가도 좋고 이름이나 형식, 내용이 어떻게 결정되든 상관없다”며 호소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어려운 것은 이해하고, 정치적으로 입장이 곤란한 것도 이해하지만 정당의 존

재 이유는 결국 국민의 더 나은 삶 아니겠나”라며 “계산은 조금 뒤로 물리시고 국정안정협의체든, 경제 문제에 한정된 협의체든 신속하게 결단하고 함께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앞서 이 대표가 전날 정부와 국회가 함께 참여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거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 협의체 참여를 재차 촉구하며 손을 내밀면서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여권의 태도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 대표는 비상계엄에 대해 “다시는 이런 시도가 생겨서는 안된다”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계엄이 실시될 경우 소위 군정이 실시돼 모든 이 사회의 행정 영역의 최종 결정을 군인이 하게 된다”며 “복잡다단하고 전문적인 세상은, 군인들이 맡아주고 입법·사법·행정을 다 쥐고 흔들어보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지금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미쳤다고도 할 수 없는 이 광적인 행위를 옹호하고 그를 되살려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민중주의의 회복력을 꼭 보여 주자”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가 윤석열을 탄핵했지만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가 남아 있다”며 “심판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공적인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의 자백과 핵심 관련자의 증언으로 이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결정 요건은 충

족했다”며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탄핵 심판 피청구인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는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심판으로 국가 위기 상황을 하루빨리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이런 광인이 대통령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위협”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국회에 탄핵 소추를 명령했듯이 헌법재판소에 파면 선고를 명령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진수기자

“논의 주도권·형식·내용 등 국힘 가져도 좋아” ‘12·3 비상계엄’ 관련 여권 태도에 강한 비판 민주당 지도부, 신속한 탄핵심판 한목소리 촉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국회의원들과 강기정 광주시장, 5개 구청장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16일 오전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애리기자

민주 광주시당 “현재 탄핵심판·구속수사 서둘러야”

강기정 시장·5개 구청장 등 100여명 5·18민주묘지 참배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지역 정치인 등이 16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조속한 탄핵 심판 결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1980년 5월 광주가 2024년 12월 대한민국을 구했다”며 탄핵 열기를 모아 준 광주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참배에는 양부남 시장위원장, 민형배

·전진숙·정준호·박군택 국회의원, 강기정 광주시장,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문인 북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당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배단은 군부 독재에 맞서 목숨 걸고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던 5·18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2024년의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양부남 시장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씨는 12월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진위 세력을 동원한 내란죄를 범했다”며 “그러나 위대한 시민,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강력한 의지와 노력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시켰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또 “여러분의 촛불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포고문을 불태워 버렸고 윤석열의 야욕을 꺾었다”며 “앞으로 남은 과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선고와 수사기관의 구속수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윤석열의 폭정으로 무너진 민생을 살리는 일과 남은 과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변은진기자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 ‘탄핵’ 긴급회의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보성농협 회의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12·3 내란 사태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국민 승리를 위한 구체적 행동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금주 위원장은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겨진 만큼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광역·기초의원 및 운영위원들은 탄핵안 가결 이후 지역 정치권의 역할과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김진수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직 사퇴

“극단주의 동조하면 보수 미래 없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당 대표로 선출된 지 146일 만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이어 그는 “그런 마음을 생각하며 탄핵이 아닌 나라의 더 나은 길을 찾아 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며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이다.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3일 밤 당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아냈다”며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투버 같은 극단주의자들에게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폭주,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이 대표 재판의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 얼마 안 남았다”고 주장했다.

/김진수기자

국힘 25.7%, 민주당 52.4%...“격차 최대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 격차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25.7%, 더불어민주당은 52.4%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0.5%p 하락했고 민주당은 4.8%p 올랐다.

리얼미터는 “양당 간 차이는 26.7%p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격차”라고 설명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6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연합뉴스

초당대학교

취업성공!
탁월한 선택!

항공 특성화 대학

초당대학교

www.cdu.ac.kr

항공운항학과

항공정비학과

항공모빌리티학과

항공관광서비스학과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스프츠경영지도학과

뷰티디자인학과

호텔조리베이커리학과

군사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소방행정학과

의약관리학과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글로벌인재생애관리학과

글로벌실버케어학과

글로벌조선학과

글로벌화학기공학과

국제학과

신입생 정시모집 2024년 12월 31일(화) ~ 2025년 1월 3일(금)

편입생모집 2024년 12월 30일(월) ~ 2025년 1월 10일(금)

간이·제2차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간이·제2차 대학원 석사학위과정